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11日(水) 午後2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豫算案審查(企劃管理室)

審查된案件

1. 1992年度豫算案審查(企劃管理室) ... 3面

(14時 20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定期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報告事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字瑛; 議案擔當官室에 勤務하는 金字瑛입니다. 報告드리겠습니다. 1991年 11月 15日 西大門區議會 第6回 臨時會에서 議決한 自治區 財政自立度 提高를 위한 建議案을 市議會 議長으로부터 1991年 11月 19日자로 當 委員會에 參考하도록 通報해 왔으며, 1991年 11月 20日 東大門區議會 第12回 臨時會에서 議決한 自治區 財政自立度 提高를 위한 建議案을 市議會 議長으로부터 1991年 11月 23日자로 當 委員會에 參考하도록 通報해 왔습니다.

建議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다.1991年 11月 25日 議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1992年度 財務經濟委員會所管 豫算案이 回附되어 왔으며, 1991年 12月 5日 議長으로부터 同 豫算案을 1991年 12月 14日까지 審査, 報告토록 通報되어 왔습니다. 1991年 11月 27日 議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이 回附되어왔고, 1991年 12月 2日 議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案,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이 回附되어 왔으며,1991年 12月 7日 議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外 21案件의 條例案이 回附되어 왔습니다.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を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이상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企劃管理室, 財務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 소속 李聲九 委員이 市民生活과 밀접하고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市政에 대하여 質疑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市長 및 關係局長의 答辯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委員會所管 豫算案 審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豫算案 審査는 千萬市民의 稅金과 직접 관련된 우리 議會 議員의 機能 중에 가장 중요한 機能입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豫算案을 하나 하나 정확히 檢討하시어 財源을 效率的으로 配分, 市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豫算案 審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은 委員들의 質疑에 대하여 자세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年度豫算案審査(企劃管理室)

(14時 23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企劃管理室所管豫算案 審査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 會議規則 第65條 規定에 의하면 議會에 豫算案이 提出된 때에는 市長으로부터 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들은 후 議長은 이를 所管別 常任委員會에 回附하고, 所管別 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를 하여 그 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1991年 12月 2日 第9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市長의 市政演說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審査할 企劃管理室所管의 一般會計 歲人豫算案과 企劃行政費 718億 900萬원, 支援諸費 各區의 交付金입니다. 7,220億 2,600萬원에 대한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室長 朴宗雨;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1992年度 企劃管理室所管 豫算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고 協助를 當付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所管豫算에 대하여 간단하게 說明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企劃管理室의 機能 및 組織을 말씀드리면 企劃管理室은 市の 政策 및 企劃을 調整하고 이를 審査·分析하며 豫算, 行政管理, 市政開發 및 法制에 관하여 市長과 副市長을 補佐하고 있고 이를

위한 下部組織으로는 企劃管理室長 아래 2·3級の 市政研究官과 投資管理官, 技術審査官과 4級の 企劃擔當官, 審査分析擔當官, 豫算擔當官, 投資管理擔當官, 市政開發擔當官, 法務擔當官, 統計擔當官, 電算擔當官, 技術審査擔當官을 두어서 각 所管業務에 대하여 室長을 補佐토록 하여 總 1室, 3官, 9擔當官, 29係 組織에 203名の 職員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 내년도 豫算規模는 總 718億 900萬원으로써 92年度 一般會計 豫算의 2.3%이며, 금년도 豫算 541億 2,700萬원 對比 191億 2,500萬원이 늘어난 規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豫算은 企劃管理室의 機能과는 관계없이 市 全體의 機關運營과 維持에 필요한 共通經費 즉 人件費라든지 官署運營費, 旅費, 給糧費 등을 統合計上 管理하기 위해 一括計上하는 機關運營費와 企劃管理室의 고유기능 遂行을 위해 각 분야별로 별도 編成하는 企劃管理 豫算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 중 機關運營費는 總 497億 6,700萬원으로써 전년도의 403億 3,800萬원에 비해 94億 2,900萬원이 增加한 規模이며 主要 增加內譯은 公務員 人件費 9% 引上分 70億 3,100萬원과 機關運營 基本經費인 出場旅費, 給食費의 單價가 引上된 結果이며 企劃管理費는 總 220億 4,200萬원으로서 前年度の 123億 4,600萬원에 비해 96億 9,600萬원이 늘어난 規模입니다. 이를 分野別로 規模를 설명 드리면 企劃調整에 4億 7,300萬원, 審査運營에 1億 1,800萬원, 豫算運營에 4億 1,900萬원, 投資管理에 11億 6,300萬원, 市政開發에 54億 2,600萬원, 法務管理에 39億 6,100萬원, 統計管理에 2億 7,700萬원, 電算管理에 2億 500萬원, 技術審査에 3億 1,000萬원 등으로써 傘下 事業所인 電子計算所 豫算이 96億 9,000

萬원 등입니다.

分野別 主要 增減內譯을 살펴보면 市政研究團 設置 運營을 위한 豫算이 31億 7,100萬원 그 다음에 電子計算所 廳舍 新築費 43億 3,900萬원 외에 전년도에는 各 部署別 分散施行하던 學術·電算管理 用役을 統合 移管計上한 11億 5,700만원과 기타 정도 600년 紀念事業團을 市政研究官 主管下에 推進하기 위해 新規로 8億원을 計上함에 따라 다소 增加하였습니다. 이러한 豫算을 다시 主要事業別로 說明드리면 조금 重複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92년에는 종전 各 分野別로 施行하던 總 22個 분야 37억 3,100만원 상당의 學術 및 電算管理 用役을 대폭 縮小 調整하고, 用役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所要豫算 11億 5,700萬원을 移管 統合 計上하였고, 民事 및 行政訴訟遂行을 위한 供託金, 法律顧問料, 賠償金 등 所要經費 35億 6,300萬원을 예년 執行水準基準으로 計上하였으며, 大都市 問題의 效率的 解決과 市政에 필요한 課題를 體系的으로 調查, 研究하기 위해 市 出捐機關인 市政研究院 設立에 31億 7,100萬원, 94年 서울 정도 600年 事業에 市民意見 收斂과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推進을 위해 企劃團 設置運營費 8億원, 또한 優秀人力 確保와 誘致를 위해 市立大學에 獎學金 資金 2億 800萬원이 反映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住民登錄, 不動產 및 自動車管理 市稅徵收 등 行政電算화와 電算裝備 維持管理費用 28億 6,900만원 그리고 現在의 鍾路區 廳舍에서 市·公務員教育院 敷地 內로 電子計算所를 移轉 新築하기 위해 總所要 114億원의 工事費中 92年 所要分 工事費 50%와 關聯 附帶經費가 각각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自治團體 支援 豫算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自治團體 支援 豫算은 總 7,220億 2,600만원이며 그 內容은 地方自治法 및 自治區에 대한 財源調整交付金條例에 根據하여 取得稅, 登錄稅의 50%를 交付하는 調整交付금이 6,298億 8,600만원이고, 市稅의 3%, 道路占用料의 30%, 交通誘發負擔金 徵收額의 10% 등 市稅 및 稅外收入徵收交付금이 591億 4,000만원 그리고 自治區의 특별한 財政需要와 脆弱區의 財政力 追加保全을 위한 財政補助金 330億원 등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6,730억 3,000만원보다 499億 9,600만원이 增額된 規模로써 市는 이를 法과 條例에 定해진 方法에 따라 各 自治區別로 交付, 支援하여 地方自治 本格化에 따른 自治區 財政力 保全과 오래된 小規模 住民宿願事業들을 效率的으로 解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來年度의 우리 市는 急變하는 國內外 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主導的으로 이를 이끌어 나가는 先進 首都 서울로써의 位相을 定立하고 本格的인 民主化, 地方化의 進展에 따라 增大되는 市民들의 다양한 要求를 合理的으로 受容하고 市民 모두가 함께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合理 市政을 具現해야 할 중요한 時期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時期에 市民에게 比前을 提示하며, 施策을 綜合 調整·分析함으로써 더욱 活기차고 生動感 있는 市政 遂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희 企劃管理室의 任務가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저희 企劃管理室이 보다 發展되고 성숙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들이 各별하신 指導와 愛情을 가지시고 協助를 해 주시기를 當付드리면서 來年度 豫算案을 審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기획관리실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質疑·答辯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議事進行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 一問一答 形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라며, 委員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長時間 答辯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答辯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豫算案 檢討를 다 하셨을 테니 委員 여러분께서 豫算案에 대해서 質疑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質疑에 들어가기에 앞서 企劃管理室에서 保管하고 있는 書類目錄을 提出해달라고 要求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提出이 안 돼 있습니다. 먼저 그 事由부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企劃擔當官 金光市; 企劃擔當官입니다. 崔委員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그 질의에.....

○崔明鎭 委員; 企劃管理室長한테 質疑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들어가는 대로 빨리 다시 챙겨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만 書類目錄이라는 것이,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企劃管理室 業務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聯關된 書類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그냥 一回性으로 끝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書類 目錄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아마 事務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事務局에서 그 內容을 알리가 없고, 그것을 委員님과 직접 相議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室長이 責任지고 이번 주 안까지 만들어서 提出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崔明鎭 委員; 提出된 企劃管理室 豫算을 보면 業務分掌에서도 나와 있지만 組織이나 機構·制度의 改編 또는 法令이나 條例의 開·廢에도 주된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個別的인 各 項目의 豫算 質疑에 앞서서 먼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質疑하겠습니다.

지난번 監査에서도 本委員이 指摘은 했습니다만 下部組織, 各 保健所에서 藥師나 醫師 外에는 取扱할 수 없는 醫藥品을 藥師나 醫師가 아닌 一般 職員들이 함부로 取扱, 購人, 保管하여 生命에 중대한 威脅이 될 수도 있는 狀況입니다. 지난 監査에서 指摘했듯이 그것에 대한 對策을 이 자리에서 먼저 좀 밝혀 주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손이 딸려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게 하도록 엄하게 저희가 措置를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왜 지금 豫算審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下部組織에는 薄俸과 業務量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건

디지 못하고 離職하는, 특히 專門職이나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職員들이 離職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擔當해야 될 部署나 分掌 맡은 곳에서 그것을 擔當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下部組織의 人員 調整이라든지 豫算 配定을 신경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알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制度나 法令 改善도 企劃管理室에서 主導的으로 管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市內에 보면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70年 이전 심지어 68年度에 個人이 私道 開設 許可를 내놓고 그 竣工을 안해서 建物 增築, 新築, 改築에 굉장한 民願이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企劃管理室에서 法令이나 制度改善을 責任지고 있기 때문에 計劃하고 있는 바라든지 是正할 用意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이런 問題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70年 以前 얘기 라면 지금부터 한 2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歲月 동안에 私道를 開設해 놓고 남의 땅에 아무런 根據도 없이 通行을 했던 하나의 慣習道路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다 집을 지으려니까 道路를 閉鎖하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住民과 마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私道로 자연스럽게 내놓고 하다 보니까 道路區劃線에 正式으로 編入이 되어서 補償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새마을사업으로 일단 골목을 鋪裝을 했는데 그것이 正確하게 道路區劃線이 地籍圖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補償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

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崔明鎭 委員; 제가 補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왜 이런 問題를 提起했느냐 하면 私道 開設許可를 내놓고 竣工을 안한 狀態에서 建物을 지었다든지 住宅을 지어서 팔아 버리고 그 私道 開設許可者는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을 여러 채의 建物을 지어 놓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開設許可는 官에서 내주고 竣工 監督을 안 해서 그대로 都市區劃線上에는 私道로 지금 現在도 나와 있거든요. 官에서 開設許可를 내줬으면 竣工까지도 責任지고 監督을 하든지 管掌을 해 주셔야지 許可는 濫發해 놓고 그 뒤는 나 몰라라 하는 式으로 전혀 介入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民願 問題가 여기서 提起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此際에 法令이나 制度에 허점이나 未備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20餘年 以上된 이런 問題, 木委員이 알기로는 官에서 監督만 제대로 했어도 20餘年동안 이런 民願이 쌓이지 않았을 것으로 確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關聯 局하고 전부다 綜合的으로 討議를 해서 이 問題를 내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對策을 세우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感謝합니다. 金炯奎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 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은 앞서 報告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市 全體的인 主要 政策과

企劃을 立案하는 그런 막중한 責任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地方議會가 탄생이 되어서 이제는 서울特別市の 市民은 서울市廳으로부터 뭔가 좀 行政의 良質의 서비스도 좀 받고 서울市民으로서의 自負心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觀點이 대두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선 歲入·歲出 豫算案의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大公園 使用料가 21億 3,50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外國의 많은 都市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서울市民의, 住民의 稅金을 받아서 하나의 慰樂施設을 한다든가 또 近隣生活施設의 便宜를 위해서 각 地方自治團體에서 無料로 公開하는 入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서울市에서는 모든 좋은 施設 이런 것을 住民의 稅金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設置해서 다시 또 入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우리 서울市議會가 市民의 代表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서울市民이 낸 稅金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市가 國際的인 都市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아주 태반으로 부족한 모든 市民公園이랄지 이런 모든 施設이 지금 開放되지 않고 돈을 받고 있는 이런 時點에 있습니다. 그래서 此際에 서울市民에게 이제는 서울大公園 정도는 無料로 開放을 해서 서울市民이 自由스럽게 餘暇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行政의 良質의 서비스를 우리 서울特別市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時點이 바로 이 時點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서울大公園 使用料, 南山公園 使用料, 보라매公園 使用料 여러 가지 入場券에 대한 使用料를 收受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서울大公園은 個人이 약 156萬 名, 團體가 47萬 名 이런 정도로 年間 觀覽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行政의 良質의 서비스를 우리 서울시에서 市民에게 公開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大公園 使用料를 전면 받지 않을 이런 用意는 없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저희도 平素에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金委員님께서 적절한 指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施設을 運營하는 市의 立場에서 보면 外國의 경우를 구태여 예를 들 必要는 없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入場料를 받는, 施設에 따라서 入場料를 받는 나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가 市民들에게 無料로 開放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조금 자기가 負擔스럽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施設 하나라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돌보면서 구경을 하고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國民 教育 上 좋은 것이냐 하는 이런 問題에 關해서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答辯 過程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마가 地下鐵을 처음에 9km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無料로 地下鐵을 運行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運行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結論에 到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大公園 施設을 만일 無料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無料로 해서 어떤 霧圍氣에 휩싸여 들어와서 이 環境을 해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市로써는 이 公園을 오히려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廢墟化시키는 그런 結論에 到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入場料는 사

실상 다른 私設施設에 비하면 불과 몇 %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低廉한 價格으로 마치 못해 利用者들에 의해서, 그 들어온 사람들이 이 施設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넣어 주기 위한 하나의 教育的인 意味의 入場料가 되는 것이지 이 入場料를 받아서 어떤 歲入에 큰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實情입니다. 사실상 이 入場料를 받아서, 만일 이 施設을 제대로 運營하도록 돈을 받는다고 하면 훨씬 이것보다 더 높은 料率을 適用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實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勘案해 주시고, 이것은 市民들에게 모든 것을 無料로 公開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市民管理方式이나 아니면 높지는 않지만, 私設施設費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市民들이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은 조금씩 負擔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 그 앞으로 2世나 3世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教育的인 次元에서의 별도의 研究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市民들에게 공짜로 그냥 開放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市民들이 다만 얼마라도 들고 들어와서 자기 支出에 의해서 모든 것이 運營되고 있다는 事項에 대해서 認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追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教育的 側面에 의해서, 또 공짜라고 하는 立場을 불식하기 위해서 使用料를 받는다, 그것이 불가피한 理由는 아닙니다. 굳이 外國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워싱턴에 있는 歷史博物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室長님께서서는 아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博物館을 外國사람이든 內國人이든 전부 無料로 公開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美國과 같은 그런 歷史博物館을 無料로 開放을 하자고 하는 그 意味와는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서울 市民들이 정말 빚도 지고 稅金도 많이 내고 있고 이제는 先進 韓國이라고 하는 立場도 있고, GNP도 1萬\$에 상당하게 육박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서울시의 施設을 市民에게 하나 정도는 公開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國際的인 當위 추세와, 道 내지는 서울市에 議會가 생겼고, 앞으로 民選市長이 들어서는데 이 時點에서 뭔가 우리 서울市가 開放的으로 서울 市民의, 住民을 위해서 무슨 施設 하나는 無料로 開放을 해야 되겠다 이런 姿勢의 轉換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大公園의 入場手數料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維持 管理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額數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立場에서 市民에게 無料로 이것을 公開할 必要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서울市民들은 어디 놀러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車, 저 車 타고 오히려 인근에 다른 有料施設, 다시 말하자면 個人的인 民俗村이랄지 이런 먼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交通의 料금이랄지, 모든 民生에 관한 問題에 어려운 家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最小限度 公休日是 서울大公園에 가서 無料로 우리가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勘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市の 福祉行政이요, 住民에 대한 良質의 서비스가 절박한 이런 時點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答辯을 못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市長과 議論해서 서울大公園 無料로 開放하겠다고 하는 확실

한 答辯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檢討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그래서 그러한 立場을 분명히 밝혀서 내일 중에는 좀 答辯을 해 주십시오.

(제가 金委員님 質疑에 追加로 質問하고 싶습니다) 라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세요.

○崔明鎭 委員; 室長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大公園에 가면 주로 動物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動物이 많지요, 植物園도 있고요.

○崔明鎭 委員; 動物, 植物. 어떤 遊戲, 歡樂이라든지 遊戲라든지 그런 施設이 아니고 教育用으로도 꼭 필요하고 또 방금 同僚 金炯奎 委員께서 指摘하셨듯이 無料 開放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赤字보다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음 部門에서 豫算을 充當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問題는 깊숙이, 또 轉向的으로 檢討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그것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市 立場도 지금 서울大公園 뿐이 아니고 여기 어린이大公園도 있고 또 그 다음에 市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施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施設이 있는데 그 施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完全히 無料로 開放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實費 次元도 아닌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좀 制限的으로 받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國民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教育이냐 하는 그런 次元에서 생각은 저희가 쪽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民들에게 모든 것을 無料로, 市營施設을 無料로 提供하는 것만이 市民을 제대로 引導하는 길은 아니다하는 觀點이 저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金委員님과 崔委員님 두 분 말씀이 다만, 그럼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部分에서라도 市民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하나 開放해서 無料로 奉仕를 하는 側面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意見이 계셨으니까 그런 意見에 대해서는 저희도 檢討를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말씀 더 하겠는데 꼭 공짜라고 하는 것이 市民精神에 不適合하다고 하는 觀點에서 室長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서울시가 市民들에게 베풀어주는 附帶施設에 대한 惠澤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交通이 無秩序하다 해서 市民의 稅金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서 길이 덜 복잡한 길은 줄을 그어서 거기다 車 놓은 것까지도 稅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길에 車를 세울 수 있게 둔다고 한다면 그런 道路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道路라고 하는 것이 車가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立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稅金을 받으면 그래도 最小限度 서울大公園 정도는 勤勞者의 子息들도 많고, 하루의 餘暇를 즐길 수 있는 그런 場所가 어린이를 기르는 그 분들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제 그 使用料가 서울大公園 維持管理에 크게 보탬도 안 되는 그런 立場에서 그것을 開放 않겠다고 하는 吝嗇한 그런 서울시廳의 當局者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住民이 稅金을 내면 稅金의 一部分이라도 包括的인 意味에서

惠澤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市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交通問題랄지 그런 與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가 餘裕롭게 進行이 안 되겠지만 最小限度 서울大公園 이런 정도는, 많은 庶民들이 있습니다. 그 庶民들의 子女들 또 勤勞者의 子女들 하루 정도는 마음 폭 놓고 거기, 그 쪽은 交通도 크게 붐비지 않는 그런 地域입니다. 그런데 도시락 가지고 가서 하루 하루 즐길 수 있도록 하는 意味에서 서울大公園을 꼭 開放해서 市政을 信賴하게 하는 그런 立場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觀點에서 그 使用料를 全額 받지 않도록 하는 立場에서 豫算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특별히 轉向的인 立場에서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企劃管理室長님 그것 좀 檢討해 주시고.....

(「그것 저..... 조금만」 하는 委員 있음)

追加質疑입니까?

○崔明鎭 委員; 네, 서울大公園 가면 돌고래 쇼는 入場料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遊戲的인 性格이 있기 때문에 入場料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별 異議가 없습니다만 지금 金炯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고래 쇼장은 除外하는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可及的이면 그러한 곳도 免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 만큼은 서울市民이 勤勞者나 庶民들이 完全히 無料로 하루를, 餘暇를 善用할 수 있는 그런 場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市民의 欲求不滿이 퍼져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健全한 餘暇善用이 되는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서울大公園에 가면 서울랜드도 있지 않습니

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서울랜드 같은 데는 거의가 遊藝場, 娛樂이나 遊藝를 目的으로 모든 施設이나 機構가 되어 있기 때문에 入場料를 받는 것이 妥當性이 있고 또 說得力이 있습니다만 勸物 갖다 놓고 구경하는 것을 入場料 받는다는 것은 사실 金炯奎 委員님의 說明에 덧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一般 市民들의 情緒에도 附合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金委員님과는 조금 케이스가 틀립니다만 돌고래 쇼場 같은 경우는 入場料를 받아도 說得力이 많다고 보는데, 단순히 植物이나 動物 있는 곳은 그곳은 우리 서울市民들이 낸 稅金으로 세워진 서울大 公園인데 그곳 정도 가서 구경하는 것 정도도 入場料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市民들의 立場에서 볼 때 情緒적으로도 附合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論理로서 金炯奎 委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同意하면서 企劃管理室長님이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綜合적으로 判斷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分離해서도 檢討해보시고 또 묶어서도 檢討해보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質疑 좀 할까요」 하는 委員 있음)

다른 委員 없어요?

(「먼저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李聲九 委員님 質疑해 주시지요.

○李聲九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豫備費가 원래 企劃室 所管이 됩니까, 原 所管이 어덯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豫備費는 어디 所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豫算擔當管室이 있기 때문에 總括해서 일단 저희 豫算擔當管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우리 財經委에서 다루는 事項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豫備費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내년 豫算이 386億원이 잡혀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지난해 執行, 11月 基準으로 專門委員 報告를 보면 한 43%가 執行이 되었습니다. 주로 年末 需要가 많이 있습니까, 豫備費의?

왜냐하면 具體的으로 금년 年末의 決算을 아직 미처 못 봤기 때문에 대략 方向이 어떻게 가느냐를 좀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제는 豫備費를 더 쓸 일이 없습니다.

○李聲九 委員; 주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여름 장마철에 예기치 않았던 天災가 많았다든가 기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는데 저희가 눈 오는 것을 며칠, 열흘이면 열흘, 열 번이면 열 번 생각을 하고 屛화갈습 얼마를 準備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3 배, 4배가 왔다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年末이라도 豫備費를

支出해서라도 염화칼슘을 추가로 購入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豫備費가 그렇게 크게 늘 쓰이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概略적으로 볼 때 지난해 豫算의 한 50% 정도가 所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 경우로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豫備費는 사실상으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만 豫備費의 성격은 結果적으로 이것은 減이나 增에 별로 意味가 사실 없습니다. 減이 되는 경우는, 이 豫備費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非常 對備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財源의 不足狀態는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增이 됐다고 그래서 큰 問題가 없는 것이 결국은 減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歲人은 자꾸 들어오는데 豫備費가 減이 됐을 경우는 어차피 現金으로 歲計剩餘金으로 도로 넘어 가기 때문에 結果적으로는 같은 現狀이 벌어 집니다.

○李聲九 委員; 일단 參考하고 다음에 計數調整할 때 그 때 새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問題가 있기 때문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委員長 朴尙東; 柳準向 委員님 질의해 주시지요.

○柳準向 委員; 서울시立大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市 豫算에서 서울시立大學의 支援額이 얼마입니까, 그 用途가 뭐지요? 어느 部分이 모자라서 지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96億원인데 주로 人件費로 支援되고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그런데 서울시立大學 卒業한 사람들이 서울시

公務員으로 많이 起用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금 170名 들어와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이제까지全體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1년에 卒業生이 몇 名이나 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년에 卒業生이, 거의 다 卒業生은 똑같은데 卒業生 숫자는 한번에..... 한 900名 내지 1,000名 선 되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900名 내지 1,000名 卒業한 데서 이제까지 전부가 170名 밖에 起用이 안됐다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人力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都市問題와 관련 있는 學科, 이런 學科의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물론 지금 우리 서울市에서 環境專門家, 무슨 뭐 稅法 여러 가지 行政專門家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그런데 900名씩 卒業을 하는데서 이제까지 170名 起用이다. 그럼 1년에 약 100億원 가까운 돈을 支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市立大學 運營을 해서 市에서 結果적으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立大學을 市가 支援을 하면서 서울市 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하는 柳準向 委員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實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市立大學을 서울에 있는 學生으로서만 制限을 시킬 수 없겠느냐, 入學生을.....

○柳準向 委員; 글썄 그런 問題도 제가 묻고 싶은 事項입니

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그런 問題까지도 聯關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나 하면 돈을 市가 負擔을 하고 市立大學을 키운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받드시 全的으로 서울시立大學에 의해서 學術이라든가 이런 問題에 依存한다고하는 그런 意味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學校를, 소위 研究教育機關 하나 負擔을 해서 키운다 하는 그런 데에 지금 意味가 附與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國立 서울大學을 國家에서 돈을 全的으로 支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서울大學校 卒業한 사람이 전부 大韓民國 教育部나 이런 國家機關에 들어가서 國家가 義務的으로 그 사람들을 養成을 해서 받아서 國家에 도움을 주느냐, 크게 보면 그렇지요. 또 市立大學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機關이 아니지만 그러나 市内에 있는 여러 機關에 들어가서 奉職을 한다 하는 自體가 결국은 크게 봐서 國家 發展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柳準向 委員; 네, 室長님 말씀 잘 들었는데 概念이 조금 다르지요. 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 간에 國立大學에서 養成된 人材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다 奉仕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는데 그건 國家 次元에서 支援하고 養成시켜야겠지요. 그러나 地方化時代고 地方自治制度가 運營되고 있는 時點에 있어서는 國民들이 稅金을 내서 서울市民의 子息들만 들어가는 學校가 아니고 全國에서 다 들어오는 學校인데 여기에다 年 百億원씩 投資를 해서 卒業한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利用도 못하고 다른 機關에 輩出할 바에야 이 서울시立大學을 運營하는 것은 展示行政에 不過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느껴집니

다. 또 여기에 連繫해서 市立病院이 여러 가지 經營이 어려워서 이것도 支援을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기왕에 市立大學을 運營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卒業한 사람 중에서 상당한 人材들을 서울시에서 起用을 해서, 또 그 사람들 獎學金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活用하는 方法, 또 기왕이면 綜合大學이니까 醫料大學 같은 것도 新設해서 거기서 輩出된 醫師들을 우리가 키워서 市立病院 같은데 起用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市立病院이 經營에 逢着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問題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 市立大學의 定員이 한 4,000名 정도 됩니다. 그런데 綜合大學으로써 제 機能을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 施設의 한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고, 人員도 7,000名 이상의 學生이 되어야 바로 지금 教育部가 規定하고 있는, 소위 지난번에 新聞에 나서 한참 大學마다 시끄러웠습니다만 A·B·C로 나눈 그 等級속에 市立大學은 지금 C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A·B級도 못 들어가고 C級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데, 그로 C級에 들어가 있는 狀況을 脫피하려면 定員을 지금 7,000名 정도로 늘려 줘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柳委員님께서 質疑하신대로 醫科大學 問題도 3年前부터 꾸준히 지금 教育部하고 折衷을 하고 있습니다. 教育部하고 折衷을 하고 있는데 首都圈地域 內의 大學에 대해서는 醫科大學 新設을 못하도록 政府가 스스로 規定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醫科大學을 懇請을 하고 있지만 우리 市立病院이나 保健所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醫師를 自給自足하게 하기 위해서 그간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政府의 그러한 規制에 묶여서 아직까지

達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實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委員님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醫科大學도 新設을 하고 해서 名實相符하게 저희市가 반드시 어떤 行政公務員, 技術職 公務員 몇 사람을 더 데려다가 여기서 가용하는 그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實質的으로 醫科大學 같은 데에서 나오는 卒業生들을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活用을 해서 保健所나 또는 市立病院에서 보다 優秀한 醫療 人力을 確保하는 그러한 노력도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豫算을 支援해 주고 또 이름이, 看板이 市立大學이니만큼 또 우리 서울市에서는 많은 人材가 필요하고, 서울市가 지금 여러 가지 展開하고 있는 事業에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展示行政은 좀 止揚하고 돈이 들어가면 投資를 해서 優秀한 사람 다 뽑고 그래서 우리 組織에 많이 起用을 시키고 또 지금 研究用役費도 今年에 많이 策定이 됐는데 市立大學의 專門教授들 많이 登用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研究도 좀 맡기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豫算이 상당 部門 節約되지 않느냐 이런 可能性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초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언뜻 보기에 이것은 순 展示行政에 불과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도 市立大學이 있으니까, 다른 市에도 市立大學 우리 서울市에도 市立大學 하나 정도는 그래도 體面上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脈絡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可及的이면 좀 投資를 해서라도 뭔가 認定을

받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좀 모양새가 낫도록 갖춰서 運營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름만 걸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 無事安逸主義의 行政은 앞으로 止揚하고 좀 알맹이 있고 내실 있는 이러한 方向으로 轉換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蘇中天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蘇中天 委員; 民主黨 所屬 蘇中天 委員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立하는데 있어서 本委員은 設立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土臺 위에서 일단 質問을 드려 보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 31億원이 지금 策定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市政 開發用役費가 13億원 지금 策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市의 어떤 開發을 目的으로 用役을 주는 것하고 市政開發院에서 하는 業務가 틀립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이 市政…….

○蘇中天 委員; 만약에 이제, 제가 質問한 것은 設立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은 反對하지만 業務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 그 市政開發研究院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다 研究用役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주로 學術的인 部分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住宅問題라든가 都市計劃問題라든가 交通問題라든가 環境公害問題 이런 등에 대해서 行政 制度 上的 어떤 研究用役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92年度에 13億원에 대한 研究用役費는 그럼 뭐냐? 사실상 市政開發研究院에서 遂行하기 어려운 部分이 있습니다. 그것은 市政開發研究院 아니라 뭐가 되어도 어차피

이 부분은 또 專門分野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電算用役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電子計算所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市政開發研究院 이런 정도의 規模를 가지고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市政 자체가 완전히 大韓民國의 모든 情報, 모든 機能을 全部 다 총망라한 그런 덩어리가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部分的으로, 아무리 여러 개의 機構가 있다고 하더라도 部分的으로, 극히 專門的인 部分은 빠져 나갈 部分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으로써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이제 그렇다고 보면 市政開發研究院의 設立을 너무 서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結論이지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서울市가 技術問題, 學術的인 問題 전부를 거의 다 통괄하려고 했을 때 計劃이 서서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立해야지 그러면 지금 段階에서는 하나의 用役業體가 다시 생기는 結論…….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蘇中天 委員; 아니, 市政開發研究院이 用役業體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온 것으로 보면 結果的으로 거기도 그런 分野, 一部分만의 市政의 開發을 研究하는 그런 目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지 않지요. 그건 아무리 機構를 더 크게 하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 機構입니다.

○蘇中天 委員; 왜 못 합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합쳐 놓으면 그것은 그런 機構를 만일 만든다고 하면 그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단순 研究機關으로써의 機能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結果的으로 소위 制限의 範圍가, 다시 말하면 統率의 범위라든지 研究의 範圍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研究機關으로써의 機能을 발휘를 못합니다.

○蘇中天 委員; 그런데 지금 用役業體 研究機關이 지금 몇 個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뭐가요?

○委員長 朴尙東; 75개.

○蘇中天 委員; 75개 業體가 지금 있지요, 서울시에는 用役을 依賴하고 하는 業體가 75個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그것은.....

○委員長 朴尙東; 諮問機構.....

○蘇中天 委員; 아, 諮問機構. 그럼 거기서라도 그것을 縮小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 統合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그건 완전 別個입니다. 어제도 제가 本會議 質問때 答辯을 드렸지만 75個라는 것은 法 令 上으로 되어 있는 35個하고 條例 上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市의 方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7個 이렇게 해서 35個인데 法과 條例로 되어 있는 이 各種 委員會는 무엇을 研究하는 機關은 아닙니다. 이것은 法 上 그런 委員會에서 한 번 걸러서 施策을 決定을 봐야 된다 하는 法으로 明示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法 上 運營으로 義務化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市政開發研究院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問題들이 있을 수 있고, 各 分野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柳準向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市立大學校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시다만 어느 大學의 專門教授가 한두

사람이 일을 處理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더 持續的으로 무엇을 하나, 예를 들면 地方自治에 관한 研究해서 地方自治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對處할 것이냐 하는 것을 行政學 研究하는 教授팀에게 주었더니 자기들 생각대로 즉 研究報告를 낸 것을 보니까 한 3個月 거처서 研究를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 內容을 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公務員이 適用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市議會가 進行이되어 가지고 저희가 市議會와 自治制度을 좀 講究해 나가려고 해 보니까 그 理論하고는 맞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公務員들이 그 教科書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 지금 예를 들면 행정학 教科書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와서 公務를 보는 公務員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 附錄에 있는 것 가지고 한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선생님이 나중에 나가면 좀 다르다 하시는 그 말씀이 社會에 나와서 다 써먹는 일이더라, 그렇게 우리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研究를 해 놓고 大學은 던져 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市政開發研究院은 責任教授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치르는 豫算에 의해서 月給이 支給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研究를 해 놓고 그 結果를 提出하면서 狀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해보고 거기에 대한 補完資料를 내고, 거기에 대한 修正資料를 내고 이렇게 해서 持續的으로 면모를 즉 維持해 나가는, 그래서 廢展하는 그 展望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는 길이 자기가 展望하거나 市가 展望한 것에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갈 수가 없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는 指針을 그때 그때마다 修正·補完하려고 하면 저희가 뭔가 連結될 수 있는 항상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辯護士하고 얘기하

면 돈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一般大學은 한 번 던져 놔 놓으면 그 다음에 가 다시 얘기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蘇中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市政開發研究院 設立은 차후에 우리가 討議할 時間이 있기 때문에 저는 重複되는 豫算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次元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조금 다른 部署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를 누가 하데요.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의 問題를 좀 學論을 했더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個人的으로 電話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參考로 하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豫算額 718億원 중에 말입니다 32億원이 지금 情報費, 特別辦公費에 들어가 있지요? 機關運營 辦公費 말고, 정확한 건 32億 몇 千萬원인데, 情報費하고 特別 辦公費 받는 職級은 몇 級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級부터 9級까지 다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다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蘇中天 委員; 그런데 實質的으로 이것이 말만 情報費, 特別辦公費지 結果的으로 實質的인 給與를 올려주는 그런 구실을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給與的인 性格도, 人件費 的인 性格도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額數가 지금 企劃管理室이 32億원인데 우리 全體를 한 번 따져 보십시다, 서울特別市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 豫決委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給與를 社會基準하고 맞추기도 어렵고 또 公務員들이 대단히 욕보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情

報費를 企劃管理室 所管의 32億원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金額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썽 그것은 性質별로 제가 分類를 해서 다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저도 봤어요, 봤는데 781億원 중에 32億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情報費, 돈 주는 것 짝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서울시 全體 豫算으로 이것을 그 분도 지난번에 이렇게 答辯을 했어요.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있다면 지금 몇 百 億원의 給料를 주고, 手當을 주고 다 하면서 다시 또 給料를, 二重給料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 것은 아니지요.

○蘇中天 委員; 왜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 제가 資料를 計數로다 整理를 못 했는데 그것을 計數로 整理해서 分類 좀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이 補充質疑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補充質疑 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崔明鎭 委員; 85페이지를 보니까 定額情報費해서 市長 120萬원, 副市長 85萬원, 1級 40萬원, 2·3級 30萬원 24名, 4級 20萬원 81名, 5級 15萬원 249名 이것이 企劃管理室에서 지출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蘇中天 委員; 아니, 일부라도 給與性格이 있지 않아요, 아

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豫算에 그렇게 計上만 한 것이지요.

○崔明鎭 委員; 豫算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우리가 計上만 해 놓고 이게 豫算을…….

○崔明鎭 委員; 이게 지금 企劃管理室 豫算에 포함도 되어 있지만 다른 部署에도 이렇게 市長의 情報費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안 되어 있지요, 그건 二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아, 그러면 서울特別市長 情報費는 한달에 120萬원 이상은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20萬원이지요.

○崔明鎭 委員;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네, 알았습니다.

○蘇中天 委員; 情報費가 이제 5級 이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級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5級 이상이신데 그 이하에 支給되는 明細書를 말이에요. 이따 午後에 됩니까? 그 5級 이하도 支拂되는 額數를, 얼마 얼마 어느 部署에 얼마 주는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午後까지? 5級이하. 그러니까 전부다가 아니고 企劃室에 5級이하가 몇 名 있는데, 6級은 얼마, 7級은 얼마 그것은 나올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단 會議 끝나고 나서 가서 作成을 해서…….

- 蘇中天 委員; 네, 저한테 좀 주시지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蘇中天 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監査 때 統計管理 部分에 대해서 質問 드렸었지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蘇中天 委員; 그런데 거기도 豫算이 策定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豫算이 配定되어 있습니까? 統計管理할 때 서울市 企劃管理室에서 2億 7,000만원인가 2億 7,700萬 원.....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常住人口調査를 하는데 資料集計員 手當이 있고 그 다음에 印刷費가 있고 그 다음에 新聞.....
- 蘇中天 委員; 됐습니다. 제가 그것 뭐 細部的으로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人口 調査할때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 해서는 항상 그 사람들이 經濟企劃院이라는 表示를 하고 다녔어요. 經濟企劃院, 그러니까 그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이 經濟企劃院에서 手當을 받는 것 아니에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 蘇中天 委員; 아, 經濟企劃院이라고 하는 그런..... 아, 그렇습니까. 그런 分野에 대해서 質問하고, 아까 제가 情報費, 特別辦公費를 왜 물으려고 그러냐하면 給與 名目 단돈 100원 이라도 준다고 그러면 9級까지 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꼭 高級 公務員이라는 5級 이상만 5萬원이다, 10萬원이다 줄 것이 아니고, 그 計劃을 9級까지도 公評하게 해서 줄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 蘇中天 委員; 네, 그 資料를 좀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이상으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崔丁植 委員!

○崔丁植 委員; 崔丁植 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市 傘下의 많은 團體를 管理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市 傘下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없습니다.

○崔丁植 委員; 다 非營利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非營利가 아니라 奉仕團體입니다.

○崔丁植 委員; 奉仕나 行政의 便宜, 市民의 便宜를 위해서 있는 團體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丁植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團體들이 市民의 진실한 奉仕나 行政의 便宜 구실을 하느냐 하는 問題고, 이것이 管理가 제대로 되면 豫算도 節減이 되고 아니면 稅收面에서도 豫算을 節減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柳準向 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市立大學에 대한 補充質問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用役費가 13億원이 나가지요, 92年度에 우리 서울市用役費가 13億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市立大學.....

○崔丁植 委員; 아니, 市立大學에 말고 92年度用役費가 13億 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丁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市立大學에 各 單科 大學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崔丁植 委員; 거기에 用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거기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기 주면 되지요.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직접 하면 되고. 이 13億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開發이라든지 이렇게 專門機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도저히 一般團體에서는 할 수 없는 部分 그런 것만.....
- 崔丁植 委員;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室長님 자꾸 專門機關 얘기를 하시는데 大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大學에서는 할 수 없어요.
- 崔丁植 委員; 어째서 할 수 없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大學에서 할 수 없어요.
- 崔丁植 委員; 市立大學에 獎學金이 얼마 나갑니까. 年間 2億원 정도 나갑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年間 2億원 정도 나갑니다.
- 崔丁植 委員; 그래서 이런 서울시 傘下에 가지고 있는 모든 團體들이 서울시의 行政에 이바지하고 또 市民에 奉仕하고 豫算을 節減할 수 있는 方法은 없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市立大學 뿐이 아니고.....
- 崔丁植 委員; 네, 市立大學 뿐이 아닙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大學에서 할 수 있는 部分이 있고, 할 수 없는 部分이 있는데, 一般的으로 大學은 學生들에 의해서 단순한 그냥 學術研究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大氣·水質測定所의 電算運營 프로그램을 開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또는 電子交通信號地域 시스템에 대한 研究 같은 것, 이것

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것, 交通綜合資料
情報體系構築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專門機關이 아니면
大學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大學에서 이것은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問題 가지고 그동안 저희도 여러 번
檢討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電算을 專門的으
로 다루는 韓國科學技術院, 키스트(KIST)라든지 또는 그와
유사한 機關에서 專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形便밖
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理解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崔丁植 委員; 市政研究를 할 수 있도록 市立大學에도 行政
的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崔委員님 質疑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丁植 委員;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市 傘下에 通行料를 받
는 것이 道路公社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施設管理公團…….

○崔丁植 委員; 施設管理公團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施設管理公團.

○崔丁植 委員; 거기에는 별 問題點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썬요, 저희가 綜合적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細部的으로 깊은 內容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아시는 部分에 대해서 제가…….

○崔丁植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서울市民이 稅金만 내는 市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입니다. 또 서울市가 지금 많은 負債를 안고 있는 실정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分野에서 管理를 좀 철저히 해 주시

고, 稅收을 늘릴 수 있는 方法이 있거나 또 歲出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行政으로 앞으로 깊이 研究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委員長 朴尙東; 李敏國 委員님!

○李敏國 委員; 지난번 監査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 用役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89년도 用役費는 서울시에서 전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89年度?

○李敏國 委員; 네, 全體 用役費..... 좋습니다. 그럼 90年度와의 1年 用役費가 다르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敏國 委員; 자꾸 늘겠지요, 줄지는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事業이 많아지면 用役도 늘지요.

○李敏國 委員;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면 이 用役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學論이 되는데 用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特別市 公職者로서는 서울이 방대해지고 또 커지다 보니까 限界에 到達했다, 또 限界線을 넘을 수도 없다. 公職者로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다 하는 次元에서 頭腦를 받자, 高敎 頭腦를 좀 받자, 다시 말하면 施策을 펴는데 있어 머리를 좀 빌리자 이것이 用役의 根本 目的 아닙니까? 그래서 그 用役에서 나온 아이템을 施策으로 立案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質問을 했습니다만 答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特別市가 89년부터 90년, 금년까지 3個年에 걸쳐서 가장 短命한 施策이 며칠짜리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런 用役을 받아서 市에서 그것을 立案해서 施策으로 反映을 시켰는데 며칠동안 간 것이 가장

短命한 施策이었느냐, 제가 알기에는 윤치영씨가 市長을 할 당시 3日 政策이 있었습니다. 發表하고 3日만에 거둬들인 政策이 있습니다. 그것이 最短命 政策이었고, 89年, 90年, 91年에 거쳐서는 최단명 施策이 뭐였느냐, 며칠간이었느냐? 그것을 質疑를 했더니 答을 못 받았습니다만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 學論이 되느냐, 用役이다 用役이 다 해서 用役費가 많이 나가지요? 用役費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이 次元에서 豫算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施策이 市民이 共感할 수 없는 卓上式 施策이다. 주먹구구 施策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用役會社에, 예를 들어서 이 名牌를 用役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글씨가 잘못됐다 했을 때에 그 用役會社에 추궁할 法律上 하등 무엇이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없습니다.

○李敏國 委員; 네, 바로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중에는 많은 用役會社들이 最善을 다하고 最大限의 머리를 짜서 現場과 市民과 서울特別市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用役을 내서 施策에 反映해 주는 會社도 있는가 하면 불 보듯이 用役費만을 노리고서 적당히 해 넘겨주는 것을 받아서 施策에 反映할 때에 바로 이러한 착오가 생긴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柳準向 委員께서 質問하셨습니다만 市立大學 運營에 대해서 柳委員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用役입니다. 주된 내용을 제가 補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하면 市立大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 작년도 90億원을 支援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豫算도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루 이틀

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人材養成을 거기서 해서 거기에서 專攻한 사람을 市 公務員으로 採用을 해서 자기가 專攻한 科目을 가지고 20年, 30年 서울特別市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人材養成을 하지 않았다. 170여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왔다 많이 가지요? 室長님은 市立大學을 만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서울大學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外國의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州立大學, 日本의 東京市立大學 같은 곳은 人材를 뽑습니다. 자기 所管에 맞는, 趣味에 맞는 科目을 專攻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市에 들어가서 公職生活하게 하고 그 專攻을 살려서 10年, 20年 그 자리만을 지키게 합니다. 他 部署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 자신이 가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專攻 과목에 矜持와 自負心을 느끼기 때문에, 遇禮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짜내는, 그러면 그 머리에서 잘못 나왔을 때 追窮을 받는, 責任을 느끼는 責任 行政을 擔當할 수 있다고 하는 次元에서 用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特別市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괴로우면 用役입니다. 나 알바 없다, 이것 用役 주자 그러면 用役입니다. 또 用役을 주는 根本 原因이 用役을 주면 말이 없습니다, 잘못 되어도 탓도 없고 잘못 됐다 하더라도 서울特別市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責任移讓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施策 反映이 잘못되고 있다 이 뜻을 柳準向 委員께서 말씀하시려고 市立大學 運營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質問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서울特別市에서 가장 苦心하는 것은 千萬 市民이 넘다 보니까, 방대한 서울이 되다보니 때로는 농담 삼아서 서울特別市를 大韓民國 반이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러한 行政을 執行함에 있어서 問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企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室長님께서도 과거 그 저 形式的이요, 義務的이요 하는 기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問題도 是正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담긴 것이 柳準向 委員님의 發言 같습니다. 補充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洞長 辦公費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5萬원.

○李敏國 委員; 제가 調査를 해 봤더니 洞長辦公費는 30萬원입니다. 정확히 30萬원이고, 面長도 30萬원입니다. 우리 서울 市가 잘 運營되자면..... 500몇 개 洞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506개동.

○李敏國 委員; 네, 그러면 3萬, 4萬을 가지고 있는 洞도 있습니다, 1個 洞 人口가요. 그러니까 1個洞에 2萬, 4萬을 가지고 있는 洞長이 辦公費가 30萬원이고, 3,000 내지 4,000을 가지고 있는 面長도 30萬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이 豫算 編成을 하실 때에 어찌면 그렇게 하십니까? 저 反問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蘇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市政 開發研究院 設立費는 이렇게 대단한 豫算이 策定되는데 직접 一線에서, 저는 洞長을 어떻게 보느냐, 一線 前方 小隊長이라고 봅니다. 一線 前方 小隊長이 없이 어떻게 市長이 存在합니까? 그러면 能率的으로 또 市政을 밝게 洞으로부터의 民願이 줄게 하기 위해서는 洞長 辦公費 정도는 92年度는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 때에 적당한 給與를 提供하고 能率을 원하는 것이 上下의 原則이라고 봅니다. 일은 100으로 하라 하고 待遇는

10으로 했을 때 이게 잘 되겠습니까? 豫算規模가 엄청납니다
만 과연 서울市 밝은 行政을 執行하자면 구석 구석에 가장
끓아져있는 過去로부터의 中央執權的인 行政體系가 改善 되
어야 될 때는 마야흐로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
장 중요한 豫算審議에 있어서 그러한 問題는 直接的인, 아주
참 절실한 內容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豫算審議를 能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한 20
分 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1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
布합니다.

(議事棒 3打)

계속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李秉守 委員 말씀해 주시지요.

○李秉守 委員; 豫算案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豫備費 386億원을 計上해 냈는데 방금 質疑도 있
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一般會計 歲出部分에 3兆 1,630
億원에 대해서 1.3%든가를 세워냈는데 다른 部署에 보면 豫
備費가 역시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이 款·項 說明에 불과한
것이지 二重 計上된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없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러면 그것은 問題가 될 것이 없고, 177페
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統合公課金 徵收事業費用으로 人
件費에 250億원의 豫算이 策定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184億 2,000萬원에서 66億이引上이된셈인데 이것改善폭을 따지니까 대충 36%가까이 되네요.

○委員長 朴尙東; 李秉守 委員님, 統合公課金關係는 財務局所管입니다. 내일 質問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禹奭; 그것은 財務局 稅政課에서 管理하는 特別會計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參考로 말씀드리면 人員이 增加된 것하고 基本給 9% 引上…….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에서 答辯을 할 수 있으면 해 줘도 좋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내일 다루지요.

○委員長 朴尙東; 내일 다루도록 하지요.

○李秉守 委員; 네, 이것은 내일 다루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企劃管理室 豫算審議를 하면서 效率的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技法 上의 問題를 제가 한 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李秉守 委員; 여러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企劃管理室 機能이 總括部署이기 때문에 現役部署와는 달리 豫算審議를 하는 側面에서 볼 때 問題點이, 歲入面에서는 더더욱 따질 것도 없고, 歲出面에서도 전부 固定費이고 이러니까 전혀 問題가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豫算審議를 終結하면서 우리 財經委 所屬 委員들 間에 한 가지 討論을 해 볼 價値가 있는 것이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置 運營하도록 우리 財經委에서, 主務 常任委에서 同意를 해줄 것이냐 하는 問題가 초점이 될 것으로 本委員은 判斷이 되는데 이 問題에 대한 어떤 贊反 討論 式으로 해서 終結을 짓는 方向으로 會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니까 다른 것, 歲入·歲出 部門을 볼

때는 전부 이상이 없으니까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것을 討論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李秉守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討論하시지요.

(「討論에 앞서서 이야기 좀」 하는 委員 있음)

네, 金炯奎委員님, 이야기 하시지요.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모든 것이 잘됐고, 市政企劃團에서만 問題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 討議하기에 앞서서 이 科란 歲入歲出豫算 事項別說明書 13페이지에 學術研究用役 해서 포괄 計上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年度中 發生하는 施策 推進 上의 問題點 對策 研究, 여기에 대한 포괄 計上된 豫算額은 얼마입니까? 學術用役, 電算用役 大別되어 있고 밑에 포괄 計上이라고 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3億원인데요.

○金炯奎 委員; 3億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리고 이 訴訟遂行費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對比로 보면 90年度 訴訟 件數가 62件에 47億원, 또 89年度는 50件에 44億원, 91年度 5월까지는 65億원에서 金額이 점점 높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91年 5月末 現在를 基準으로 해서 돈 65億원을 건지기 위해서 訴訟費가 작년에 33億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實質的으로 우리가 訴訟遂行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隘路點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觀點에서 볼 때 豫算, 들어간 費用을 우리가 勘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賠償金이 전년도 20億원이고, 금년도에 20億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現實的으로 우리가 訴訟 件數가 줄어들든지

金額이 커진다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實質的으로 問題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35億원이고 또 訴訟供託金으로 우리가 2億 5,000萬원정도 이렇게 支出하고, 行政訴訟과 民事訴訟 費用이 또 나가고, 訴訟業務活動費가 나가고 訴訟有功者 訴訟遂行補償金이 나가고, 이 모든 것은 法律에 대한 顧問을 한다고 하는 辯護士 내지는 法務擔當管室에 訴訟遂行者한테 支給되는 經費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觀點에서 訴訟遂行費가 總體的으로 顧問料를 월 15萬원씩 주고 있고 그 숫자가 22명인데도 불구하고 訴訟 遂行할 때 事件 別로 보자면 着手金이 120萬원 또 謝禮金이 162萬원, 물론 事案에 따라서 이보다도 더 많이 있겠지만 平均的으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訴訟 訴價보다도 오히려 訴訟遂行 費用이 사실상 너무 過多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見解를 묻고요, 또 이 見解에 따라서 訴訟을 有功者한테 포상금도 주고, 아마 表彰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訴訟을 根本的으로 誘發하게 하는 그 처분에 당사자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措置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歲人部分에 대해서 取得稅와 登錄稅 問題는 財務局所管으로 思料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겠습니다만 우리가 基本的으로 膨脹하게 되는 豫算이 경우에 따라서는 膨脹豫算이 아니다 하는 理論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膨脹豫算의 見地로 봤을 때 歲入推計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스러움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李秉守 委員이 말씀했었던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해서 아울러서 質問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企劃室의 職制編制가 잘못되어서 옥상옥이라고 하는 指摘도 本會議 席上이나 本 委員會 監查에서도 指摘된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市政開發研究院의 設立을 지금 豫算 上에 내놓았는데 이 出捐金 31億원하고 우리가

이 이제까지 行政監査나 本會議席上에서 指摘된 바와 마찬가지로 企劃管理室의 職制에 改編이 없는 狀況에서 과연 市政開發研究院 設立이 필요한 것인가, 또 設立이 필요하다면 왜 이것을 財團法人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財團法人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의 監督과 모든 것을 定款에 의해서 規制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最小限 財團法人으로 써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變態的 立場에, 옥상옥을 만드는 이런 處事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市政開發研究院設立에 대해서는 財團法人으로 하는 理由와 企劃管理室의 職制를 先行的으로 改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業務가 實質적으로 二重構造의, 옥상옥의 實態다 하는 것을 觀點으로 해서 室長의 고명을, 그 뚜렷한 見解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까 金炯奎 委員님께서 먼저 質疑하신 辯護士의 着手金이 件當 130萬원, 170萬원 이것은 좀 問題가 있지않느냐 하시는 그런 指摘이셨습니다. 저희가 統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數值上 表示를 했습니다만 그 訴價의 內容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0萬원까지는 民事訴訟의 경우 저희가 25萬원의 費用을 支出하고 있고, 1,000萬원까지는 40萬원, 그 다음에 3,000萬원까지는 60萬원, 5,000萬원까지 120萬원 해서 1億원 이상은 300萬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勝訴가 되면 結果적으로 相對로부터 다 이것이 回收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費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顧問料를 別途로 支拂하면서 着手金を 준다든가 訴訟遂行 費用을 주는 것이지만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以外에 隨時로 여러 가지 狀況이 많이 發生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하나에 대해서 法律 諮問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公法을 좀 專攻하는 분이라든지 또 刑法을 專攻한 분이라든지 民法 系統을 專攻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각 기능별로 해서 저희가 일단 參考를 해야 될, 諮問을 받아야 될 그런 部分이 많은데 만일 이 顧問辯護士를 주지 않고 顧問辯護士 委囑을 안 해 놓으면 그 때마다 辯護士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行政 遂行 上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顧問辯護士를 이렇게 지금 해 놓고 月 15萬원 정도의 辯護士費用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名이 된 것은 22個 區廳이 돼서 보통 한 區廳에 한 辯護士씩, 한 辯護士가 그 區廳을 專擔해 주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바로 그 점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法律的 事項이 惹起되는 것을 豫見해서 그것을 法律的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서울市廳의 意圖가 顧問辯護士를 活用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件當平均金額이, 着手金이 129萬원, 謝禮金이 나갈 정도의 行政處分에 대해서는 顧問料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顧問을 받아서 業務를 推進해 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訴訟에 대한 事項이 法律顧問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當該 處分處 또 當該局과 이런 法律顧問 活用을 適材適所하게 하지 않고 자의적인 行政處分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訴訟 件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顧問制度를 확실히 두려면 이러한 法律的 問題가 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이겨서 謝禮金を 주는 정도로 이런 顧問料는 말이죠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顧問料를 없애든지 行政 訴訟費用의 謝禮金を 없애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關係公務員이 잘 모르는 法律常識을 參考 顧問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顧問制度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顧問을 두고도 法律事實에 대해서 件 當 着手金 해서 거기다 또 敗訴까지 하는 그런 行政 處分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責任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은 法律을 擔當하는 사람이나 室長이나 어떤 政府의 意志만 가지고 推進하는 그런 市政의 決心 이런 데에서 비롯되어서 法律的事項에 마찰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에는 顧問制度를 없애든지 行政 또는 民事訴訟에 대한 費用을, 謝禮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평소에 法律顧問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일을 시작하려니까 着手金 정도는 혹시 그 理由가 되나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謝禮金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法律顧問을 活用하지 못했다고 하는 서울市 當局者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法律 顧問制度를 廢止하든지 謝禮金을 주는 이런 制度를 廢止하든지 室長의 뚜렷한 意志가 필요하고 아까 말한 包括 豫算 3億원에 대해서 다시 質問하겠습니다. 우리 企劃管理室에서는 學術用役과 電算用役의 두 파트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더더구나 社會福祉指標調整 設計 같은 것은 과거에 用役을 준 事實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立大學에서 2年 前에 한 번 했는데요.

○金炯奎 委員; 그럼 2年 前에 實施한 것이 2年 後에 狀況變更이 있었습니까? 具體적으로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法上 3年 週期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法上 3年 週期로다. 최초로 해 놓은 그 指標의 變化推移를 3年 週期로 계속 補完해 들어가

도록 法上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法 上에 3年 週期로 한다 하면 우리 서울시 自體에서 또 서울시立大學에서 이런 것을 評價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市 投資機關의 經營實績 評價, 우리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交通運營改善 이런 問題에 대해서 전혀 안 해 봤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金委員님, 題目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說明을 할수가 없습니다만 이 經營實績 評價라는 것이 하나의 技術事務입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狀況이 아니고 저희가 傘下 5個 公社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法 上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措置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重點的인 內容은 投資機關을 앞으로 責任經營體制로 確立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經營合理化를 圖謀하자 해서 政府 各 機關이 전부 다 공히 이 制度를 지금 實施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經營 上의 問題點을 導出해서 經營改善을 誘導한다 하는 그것이 두 번째 目的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出資하고 있는 出資金의 效率的인 管理로 해서 本來의 設立 目的에 충실히 寄與할 수 있는 그런 方案을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서 그 經營分析을 하는데 보통 經營分析을 하는 期間이 한 6個月 정도 所要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常住해 가면서 第3者的인 立場에서 아주 客觀的으로 그 現場에 임해서 職員들의 動態부터 시작을 해서 經營管理,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公務員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人力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能力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經營實績評價를 저희가 별도로 學術機關에 用役을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問題도 저희가 市政開發研究院이 생기면 市政開發研究院으로 하여금 代行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다면 서울市政研究院 發足과 同時에 이런 學術用役에 대한 費用은 節減되리라고 豫見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節減 豫見이 됩니다.

○金炯奎 委員; 豫見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리고 電算用役에 대해서 消防對象物 電算化, 大氣·水質測定所 電算運營프로그램, 交通綜合資料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電子交通信號制御機 시스템 研究 이런 問題는 거의 地方警察廳 所管業務와 重複되는 감이 있고 이런 立場에서 우리가 과연 서울시에서, 물론 地方警察廳 業務에서도 重複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用役을, 專門家에게 用役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二重으로 이렇게 用役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한 電算關係 豫算이 상당히 많이 增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消防對象物 電算化, 이것 入力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大氣·水質測定所 이것 전부 關係機關員이 해서 入力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다른 電算用役이라고 包含해서 用役費를 이렇게 計上을 했는데 本委員이 생각 할 때에는 電算用役에 대한 用役費 이게 얼마나 됩니까? 學術用役은 얼마고, 電算用役은 얼마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電算用役이 4件에 6億 5,000萬원입니다. 지금 金委員님께서 學論하신 대로 消防對象物 電算化 用役하고 그 다음에 大氣·水質測定所 電算用役 프로그램하고

交通綜合資料 情報體制 構築하고 電子交通信號制御機 시스템인데 이것은 제가 잠깐 說明드리겠습니다. 電子式交通信號制御機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전부 다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政府하고 合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政府하고 合同으로 지금 3年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國家的인 事業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地方警察廳, 서울시 이런 問題가 아니라 다만, 서울시에다 일부 負擔을 시키고 各市·道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發展될 것입니다. 그래서 科學技術處에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저희도 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93年度末이나 94年度 되면 서울시內 通信體系가 完全히 다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開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公務員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지금 外國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科學技術處에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交通綜合資料 情報體系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題目만 보시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시겠습니까만 89年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89年부터 해 와서 앞으로 이것이 다되면 어떤 狀況이 벌어지느냐, 委員님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단말기만 탁 누르면 어느 停車場에 버스가 지금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단말기 하나 가지고 그 狀況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버스가 몇 臺가 다니고, 보통 運送人員이 몇 名 되고 그 근처에 주로 어떤 建물이 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속에 收錄이 되는데 이것이 當該年度에 끝날 것이 아니고 89年부터 계속 지금 나가는데 앞으로 94년까지 끌고 나가야 될 그렇게 形便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大氣·

水質測定所 電算運營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資料를 入力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現場에 전부 다 調査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汚染排出源이 저금 및 個所냐 하는 그 汚染排出源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전부 現場調査가 끝나서 거기에서 전부 다 水質檢査가 끝나고 그 結果에 따라서 數値가 入力이 되고 電算이 되는 그런 過程이기 때문에 저도, 企劃管理室長도 이것을 金委員께 충분히 技術的인 問題를 說明드릴 수 없음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그런 狀況으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最小限으로 줄이느라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用役費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用役하면 대충 이러한 電算關係 用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一般的으로 施設附帶費 性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建築物이라든가 一般構造物 이런데 設計를 하기 위해서 그 設計에 들어가는 그것도 一種의 用役으로 表示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用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金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一般 學術用役 이런 것은 市政開發研究院이 생기면 거기다 委託을 해서 하면 저희가 持續적으로 계속해서 發展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이 되면 一般學術用役은 여기서 전부 다 排除가 되고 市政開發研究院으로 하여금 檢討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市政開發研究院이 한 달에 月定額의 報酬를 받고 앞으로 勤務를 해야 될텐데 그 報酬받는 그 金額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學術研究 用役에 버금가는 報告書가 나오리라고 室長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여기 저희가 基準을 잡아놓은

것은 國土開發研究院이라든지 또는 交通開發研究院이라든지 또 內務部가 중심이 되어 있는 韓國行政發展委員會라든지 이런데서 그분들 水準을 저희가 參考를 해서 報酬 基準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으로 많은 頭腦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定着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外國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頭腦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것이 設立이 되면 오히려 國家的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희 市로서도 委員님들이 그때 그때마다 좀 필요로 하시는 그런 問題에 관해서 그 분들에게 資料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委員님들이 수시로 그 분들과 對話를 나눌 수 있으면서 보다 公務員들과 다른 思考에 의해서 市政을 끌고 나가는 그런 方向에 대해서, 또 다른 特殊分野에 대해서 專門的인 資料 知識을 提供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市政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것은 財團法人으로써 하지 말고 우리 서울市에서, 앞서서 이런 분의 모든 水準을 統廢合해서 우리 公務員 水準으로써 상당한 待遇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業務 分掌만 正確하고 客觀的이게, 어느 政治的인 立場에서 退職을 하거나 移動을 하지 않도록 身分保章을 뚜렷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財團法人이라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金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公務員 水準으로 해 주면 報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公務員 水準의 身分을 가지고 報酬를 받고 와서 勤務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公務員 水準은 지금 管理室長 月給이 100萬원 조금 넘는데 제 水準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報酬 水準도 維持해 주고, 그 다음에 公務員은 身分 上 制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制約이 많기 때문에 그 制約을 그 사람들이 다 맡으면서 研究를 하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研究에 專念하고 자기들 行動舉止에 일반적으로 規制를 받지 않는 그런 狀況을 維持해줘야만 그래서 國土開發研究院이라든가 交通開發研究院이라든가 그런 次元으로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市 機構로써, 研究機關으로써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保健環境研究院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專門職을 구하느라고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公務員 待遇를 받으니까, 公務員 待遇를 받으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公務員 待遇를 받고 보니까 專門人力이, 정말 좋은 두뇌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金委員님이 指摘해 주신 대로 그런 狀況으로 끌고 간다면 저희도 長短點이 물론 있겠지만, 長點이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運營하는데 實效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지금 우리 室長께서 市政開發研究院의 멤버를 世界的인 水準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室長이나 또 政府的인 또는 어떤 側面에서 因果關係에 의해서 構成되리라고 보지 금방 室長이 意圖한 바와 같은 世界的인 頭腦, 아주 우수한 頭腦, 이런 분이 市政開發研究院 타이틀에 의해서는 아마 不足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지금 또 앞서서 말하는 學術用役 研究, 지금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정도 水準은, 이런 정도 研究 學術用役이나 電算用役은 그런 世界的인 頭腦가 아니더라도 公務員 身分으로써 충분히 可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옥상옥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이것을 獨立的으로 財團法人으로 있게 한다고 한다면 市民이 낸 稅金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롭게 身分도 保障해서 뚜렷한 研究를 하도록 만들어 주지만 그와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制動裝置는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委員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지요. 그것은 당장 1年이면 評價가 나오고 2年이면 評價가 나오는데 委員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함부로 그냥 적당히 돌아갑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金炯奎 委員;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안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委員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제가 함부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金炯奎 委員;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用役事項 問題는 市政開發 研究院이 設立되면 앞으로 이런 用役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게 안 합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러면 일단 31億원 가지고 이런 研究가 可能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단 初年 度에 可能합니다.

○金炯奎 委員; 初年度에 가능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結果적으로 이것 11億원 用役나가는데, 技術研究까지 해서 13億원 나가는데 어제 本會議 發言에 對答을 하기에는 10億원은 廳舍를 購入하는데 쓰고, 20億원인데 이것은 13億원이고 그러면 7億원은 우리가 더 손해 보네, 서울 시민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같은 經驗을 비추어보면 순수한 用役費, 學術用役費로 나가는 것이 거의 한 30億원 水準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政開發研究院이 생기면 다 줄어들 것이라고 前提를 하고 사실은 豫算에 計上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많은 것을 豫算에 計上을 안 하고 다 빠뜨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市政開發研究院으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한 節減을 하려고 自體的으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金炯奎 委員;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發見했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立함으로써 해서 많은 學術用役 資料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빠뜨려 왔다, 그 內容을 봅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그것은 앞으로 豫想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發生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金炯奎 委員; 실컷 많이 發生해 봐야 작년에 4億 5,000萬 원밖에 안 되는데, 91年度 豫算에 反映된 것이. 用役費 4億 5,000萬 원밖에 안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반 것 빼고, 작년에 學術用役만 17億.....

○金炯奎 委員; 아니, 2페이지의 전년도 豫算案을 보세요, 2페이지. 뭐 17億원이고 뭐고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말이지요. 金委員님 작년도에 27億원이 나갔어요. 작년도에 27억인데, 이것은 각分野에 있는 것이 전부 다 綜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企劃管理室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각分野別로 나갔던 것이 綜合된 것이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部署에는 지금 用役費가 한 푼도 없습니다. 완전히 企劃管理室이 學術用役을 전부 다 틀어쥐었습니다. 다 틀어쥐고, 그래서 5億원만 일단 計上을 해 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局, 다른分野 別로 그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用役費를 計上을 해 놓고 있었는데 散發的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豫算節減 次元도 있고 또 委員님들 보시는 앞에서 이것 온 동네 다 벌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豫算을 한 데 모으자, 그래서 用役費를 한 데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刊行物 費用을 각 局別로 있던 것을 전부 다 틀어 모아서 다른 局에 한푼도 안 주고 公報室에다 딱 묶어서 앞으로 審査에 通過가 되어야만 豫算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形態로 이것도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틀어 모아서 모은 것이 5億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企劃豫算, 이 속에는 4億 3,700萬원이 여기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은 用役을 했는데 금년에는 13億…….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말이지요, 여기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企劃行政費 속에 있는 것만…….

○金炯奎 委員; 企劃行政費 속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7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全體的으로 하는 것이 13億

원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 보다 用役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줄었지요.

○金炯奎 委員; 줄었다고 하는 理由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으로 생기는 것은 市政開發研究院을 活用한다…….

○金炯奎 委員; 여러 가지 用役 줄 것이 많이 있는데 豫算에서 빼뜨리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까지 예를 봐서 追加로 發生할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金炯奎 委員; 學術用役도 수시로 發生하면 바로 주고, 또 發生하면 또 주고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豫算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豫定되어 있는 것도 있고, 政策을 遂行해 나가는 過程에서 예기치 않게 부딪치는 수가 있는데, 상당히 조그마한 問題로 생각을 해 봤지만 일을 檢討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선불리 쉽게 간단히 다룰 問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토론을 해 보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公務員들이 常識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던 그런 部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어떤 政策決定을 해야 되는데 그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用役機關에 다 依賴해서 어떤 結論을 얻어서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頭腦를 빌려서 쓰는, 그러한 의지하는 形態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用役費라는 것이 보통 包括費로 計上이

되어있지 事前에 요것 요것은 몇 月에 무슨 資料가 나가고, 몇 月에 무슨 資料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用役을 해서 3個月 또는 6個月 短期間내에 이것을 研究를 시켜서 받아야 되겠다하고 들어온 部分에 대해서는 굉장한 審査를 합니다. 이것을 꼭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過程을 이때까지 거쳐 왔기 때문에 豫定된, 어떤 豫測 可能的, 있을 수 있다고 判斷되지만 그런 包括費 計上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計上을 하고 나머지는 다 뺐다 그 말씀입니다.

○金炯奎 委員;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市政研究團, 이런 立場에서 우리가 運營을 해 왔었던 과거 先例가 있습니다. 用役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나 그 用役에서 우리 市政에 採擇된 事項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用役을 받아서 그 報告書에 의한 것이 廢棄되고, 이런 無用之物化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學術用役을 단순히 우리 市政에 參考하겠다고 해서 豫算으로 計上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學術用役에 責任 事項이 不正確하고 또 그것이 實質적으로 그 用役의 必要性이 市政에 反映이 안 되는 立場에서 과연 새로운 新設機構까지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市政에 끼어드는 그런 事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議會가 있으니까 關心있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疑問點에서 과연 必要性을 認定을 하도록 하려면 市政을 擔當하고 있었던 企劃管理室長이 엄격하게 그 學術用役에 대해서 管理를 잘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用役費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用役의 對價로 해서 우리 市政에 이렇게 參考가 되었습니다 하는 白書가 나와야 아, 이것 별도 機構를 만들어서 研究, 이렇게 設立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까지 해왔었던 學術用役이랄지 모든 것이 市政에 反映된 것이 과연 어느 분이 學術用役으로 맡은 調查報告가 市政에 反映되었느냐 하는 實績 證據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내놓고 과연 學術用役이 우리 市政에 參考가 됐다 그걸 立證을 해 줘야 새로운 機構가 탄생을 하든지 좌절이 되든지 그런 立場이 밝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바로 金委員님이 아주 정확한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研究機關에서 用役을 해서 資料를 제출한 것은 業者가 物件을 納品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한 件 當 2,000萬원이면 2,000萬원, 3,000萬원이면 3,000萬원 받아서 이러 이러한 題目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內容으로 研究를 해 달라 하고 3個月이면 3個月, 6個月이면 6個月 期限을 딱 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意見대로, 자기들이 조사한 바대로 죽 전부 나열을 해서 結論은 이렇게 같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提出을 합니다. 그러면 그 結論은 쓰지 않더라도 中間 內容 中에 部分的으로 저희가 採擇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用役은 1/3밖에 쓰지 못하고 2/3는 못 썼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責任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規定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鋪裝工事を 했으면, 一般業者가 鋪裝工事を 하면 잘못된 部分에 페널티다 물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서울特別市 道路管理事業所, 西部建設事業所에서 鋪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公務員이 問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工事は 저희 設計에 따라서 補完해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不正確하고, 또 한 번 갖다 내 놓은 그 資料에

대한 責任이 없고 하는 이러한 점 등이 저희가 아직까지 用役을 썼지만 그 用役을 제대로 活用하지 못한, 金委員님께서 적절하게 指摘하신 바로 그러한 흠집을 이제 저희가 補完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바로 저희 傘下에 直屬機構를 하나 뚝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研究 結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들어가는 過程을 좀 겪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委員님들이 4年 계시는 동안에 과연 그 당시 企劃管理室長이 이렇게 이렇게 說明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4年전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2年만 지나면 판가름이 나는데, 그 판가름은 委員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그 때는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說明드린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 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叱責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나무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나중에 豫見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주 自信滿滿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제까지 學術用役을 맡겨서 1/3을 쓰고 2/3을 버리는 그런 立場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판단은 企劃管理室에 있는 이 職制 上에, 예를 들어서 市政研究官이나 投資管理官이나 技術審査官이 判斷을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그 用役을 發注하는 主管部署가 하는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主管部署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지금 말하는 市政研究官이나 投資管理官이나 技術審査官은 그런 判斷을 할 수 있는 能力이 없는

분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技術審査官은 技術에 관한 諮問을 물론 합니다만 市政研究官이나 投資管理官은 일단 어느 部署에서 이러한 問題에 관해서 用役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할 때에 그 用役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檢討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機關에서 要求를 하든지 필요하니까 要求를 하지, 필요 없이 어디엔가 資料 있는 것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要求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모두 社會變化에 따라서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무리 檢討를 해 봐도 이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主管部署하고 相議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檢討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檢討結果를 넘겨주면 그 檢討한 結果를 가지고 發注하는 主管部署가 그것에 의해서 節次를 밝아서 研究用役機關을 정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結果받아서 執行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市政研究官은 뭐하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

○金炯奎 委員; 主務局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市政研究官은 뭐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이 뭐를 하느냐고 자꾸 質疑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金炯奎 委員;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이미 企劃管理室의 職制에 대한 問題는 여러 가지 矛盾點이 있다고 하는 것이 指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職制를 改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두고, 또

한 本委員이 생각 할 때에는 이 市政開發研究院 이 自體도 이와 같은 有明無實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그간 實績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것을 逆으로 그런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立場이기 때문에 研究院의 設立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設立된 研究院에서 研究한 學術用役이 市政에 反映이 안 됐을 때는 그 研究官은 企劃管理室長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責任追窮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해야 됩니다. 金委員님 믿어 주십시오. 한 번 좀 지켜 봐주십시오.

제가 무슨 이것을 만들어서 누가 뭐 이것 때문에 덕 볼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생각다 못해 할 수 없이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委員님들께 實情을 토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믿어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다시 말하자면 研究院이 없었기 때문에 中長期 財政計劃도 어설프고, 都市基本計劃도 어설프고, 이제 앞으로 이런 研究院이 있으면 어설픈 그런 計劃은 안 세우고 단단히 하겠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대로 해야지요.

○金炯奎 委員; 제대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제대로 해야지요.

○金炯奎 委員; 財團法人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주 會社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사람들은 研究를 하는 사람들이지

法人에 있던 무슨 株式會社에 있던 그런 것은 關係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研究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身分 保障 해 주고 待遇해 주면되는 것이지.....

(「조금 質疑.....」 하는 委員 있음)

○金炯奎 委員; 우리 崔委員 追加로 해 주세요.

○委員長 朴尙東; 追加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室長께서 答辯하신 內容 중에 그 많은 市民의 血稅를 들어서 發注한 用役報告書 結果가 실제 市政에 反映이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것.....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是認했습니다.

○崔明鎭 委員; 非效率的이고, 非能率的이고, 無用之物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計上된 用役에 관한 費用은 全額 削減해도 相關없다는 뜻으로 解釋해도 괜찮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그 用役하고 다르지요.

○崔明鎭 委員; 다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이것은 電算用役이지요. 學術用役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學術用役이지요. 委員님들이 너무 자꾸 몰아붙이시니까 저도 헛갈려 精神을 못 차리겠는데.....

○崔明鎭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答辯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公務員 身分으로 들어와서 勤務할 수 있는 外部人士, 흔히 이야기 하는 資格證을 가졌다든지 또는 많은 學問研究나 特殊한 技術을 保有했던 사람은 단순한 公務員 身分으로 들어와서 勤務할 수

있는 職制가 없다, 그래서 財團法人이라는 特殊法人을 設立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職制機構 중에 公務員 身分으로서 勤務할 수 있는 給與나 勤務條件이 맞지 않아서 本委員이 서두에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많은 人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質疑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腹案은 없으시고 단지 지금 市政開發研究院에서 勤務할 수 있는 그런 碩學들에 대한 그런 腹案만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人力에 관한 問題는 지난번부터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洞事務所의 人力이 不足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保健所도 人力이 부족하고, 어디도 人力이 不足하다는 人力不足의 事態가 있습니다. 그런데.....

○崔明鎭 委員; 人力不足이 단순한 行政職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전부다, 각 分野 다.....

○崔明鎭 委員; 특히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그런 分野를 指稱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資格證을 가져야 된다고 못이 박힌 그러한 서울시 公務員의 職種은 研究所밖에 없습니다. 保健環境研究院이라든지 그런데서 技術士면 技術士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專門職으로 앉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保健所 所長은 醫師가 아니어도 可能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保健所長이요?

○崔明鎭 委員; 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保健所長은 醫師라야지요.....
- 崔明鎭 委員; 保健所 醫師는 專門 資格이 아닙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그 職種에 맞는 것은 醫師라고 하는 그런 職種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일정한 技術士라든가 이런 資格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醫師지. 꼭 博士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 崔明鎭 委員; 그 資格證이 없으면 保健所長에 補任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입니다. 醫藥科에서 藥品取扱하는 擔當者도 藥師나 醫師의 資格證이 없으면 藥品을 取扱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法條文으로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겠지요.
- 崔明鎭 委員; 그런 勤務條件이 열악해서 또는 받는 月給이라든지 給與가 너무 열악해서 離職을 하고 그 자리가 人員이 不足하니까 資格證도 없는 사람이 그 職을 대신해서 맡아서 法을 가장 遵守해야 될 일선 行政機關에서 違法事實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本委員은 指摘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崔明鎭 委員; 市政研究院에서 앞으로 豫定된 分野, 무슨 무슨 分野에 몇 名의 人員을 計劃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交通, 住宅, 環境, 都市計劃 그 다음에 一般行政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內容, 行政制度 分野까지 包含해서 앞으로 저희가 出發을 할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 정도라면 그 속에 分岐를 따지면 굉장히 內容이 많습니다.

○崔明鎭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도……」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市政開發院에 대한 補充質疑지요?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저쪽으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李秉守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秉守 委員; 지금 금년에 出捐하려고 하는 31億 7,000萬 원 중에 設置費하고 設立費, 1年 運營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1年 運營費를 碩學 소위 高級頭腦들 한 60名 으로 基準을 했는데 1年 運營費를 얼마로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年 運營費를 16億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16億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럼 設置費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活動費, 設置費…….

○李秉守 委員; 현재 31億원 중에서 나머지는 設置費로 본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秉守 委員; 그럼 市政開發研究院 이런 시스템이 外國의 경우 先例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東京만 해도 자체 자기네들 研究院이 있고, 지난 번에도 가니까 東京에서도 그런 研究院 가 지고 있던데, 우선 그것만 아니라 大韓民國만 해도 光州에도 있고 大邱에도 있고 市立研究院이 다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래서 제 자신 人口 한 300萬이 넘는 外國의 경우 共產圈을 除外한 都市는 거의 제가 다 가 봤는데, 제

가 學者가 아니기 때문에 學術的인 그런 側面이 아닌 그냥 피상적인 장사 立場에서 이것 저것도 보고 했지만, 특히 東京의 경우에는 市政開發研究 이런 趣旨로 오래전부터 專門化되어서 執行機關의 政策諮問 役割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귀담아 들은 일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지금 서울市가 안고 있는 道路交通이다, 環境이다, 住宅, 食水, 이것은 발등의 불인데 이 機能이 앞으로 갈수록 多元化 되어서 자꾸 과생되어서 새로운 問題들이 튀어나올 테니까 그것을 研究를 하기 위해서 이런 制度를 運營하겠다 하는 趣旨는 責任市政을 하겠다는 立場에서 충분히 저는 理解는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贊成하고 싶은 사람인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 地下高速道路를 앞으로 뚫기 위해서 用役費가 3億 5,000萬원 이미 나갔지요? 나간 것으로 알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用役 중에 있습니다. 國土開發研究院에서…….

○李秉守 委員; 그 檢討結果가 오면 현재 市의 方針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結論을 이미 假想하고 있고, 結果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豫算에 地下道路 이것도 하겠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가령 市政開發研究院이 이미 設置되어 있었다라면 3億 5,000萬원 이런 헛 돈이 안 나가도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이런 식으로 吸收가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나갔던 各種 用役費는 분명히…….

○企劃管理室長 朴宗雨;節約 될 수가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節約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蘇中天 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蘇中天 委員; 방금 전에 金炯奎 委員께서 質議하실 때 答辯에 財團法人으로 하는 理由는 公職者의 身分으로는 거기에 勤務할, 研究하고 할 사람이 안 온다, 쉽게 말해서 안 온다 그런 이야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待遇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蘇中天 委員; 待遇를 할 수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蘇中天 委員; 그러면 현재 企劃管理室에 있는 분들, 投資管理官이나 그런 분들 以上の 분들이 와서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市政研究官이 博士입니다.

○蘇中天 委員; 博士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리고 市廳에 博士 많이 있습니다. 우리 職員들 中에도 博士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博士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專攻分野가 있지만 나는 趣向이 待遇에 불구하고 公職에 就業하고 싶다 이렇게 選擇을, 어떤 依賴를 받았을 때 本人이 自願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相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하고 研究機關에서 자기는 계속해서 勤務를 하고 싶은데 公務員 身分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떡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 대부분 다 公職者 身分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研究하는 그러한 身分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待遇를 해 줄 그런 方法을 찾기 위해

서라도 公職者 身分으로 딱 틀어 매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制約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서 委員님들이 質疑하시는데 答辯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사실 여러 가지 많은 制約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身分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身分을 維持시켜 줘서는 충분히 活用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蘇中天 委員; 그런 理由도 되는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신 博士님도 계시고 다 저분들의 頭腦 가지고도, 서울시의 市政發展을 위해서 충분한 頭腦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저분들이 모든 것을 發揮하고, 研究하고 하는데 나중에 責任에 의해서 保障이 안 되거든요. 지금 身分保障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정말로 서울시를 위해서 研究하고 할 수 있는 그런 保障을 해주면 저분들이나 거기에 오는 博士님들이나 똑같은 것이지, 만약에 거꾸로 모른다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個人的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서울시 身分保障 公務員으로서 勤務를 못 하겠으니까 나 사표 내겠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그 밑에 博士님들 쪽 계시는데 이상한 質問하는것 같지만 혹시라도 도저히 여기서 勤務를 못 하겠다 그런 분 있어요?

○市政研究官 康泓彬; 저한테 質問하셨으니까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한 번...... 觀望합니다, 答辯해 보세요.

○市政研究官 康泓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市政研究官의 하나로써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政策開發의 모든 部分을 갖다가 다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워낙에 分野가 많고 또 專門化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여러 가

지 政策의 調整役이 主가 되고 研究需要는 아직까지 學術用役에 의해서 충당이 되는데, 學術用役이 室長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제가 學界에도 있어 봤고 市에서도 봅니다만 저희의 水準이, 저희의 市政에 관련된 學問分野의 水準이 즉시 市政에 쓸 수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 내기에는 참 취약합니다.....

○蘇中天 委員; 아, 글썄 제가 알고 있는데 제 個人的인.....

○市政研究官 康泓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왜 취약한고 하니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市政開發研究院을 만들면 대부분의 저 같은 都市計劃이라든가 이런 것을 專功한 사람들은 상당한 機會로 생각하고 올 態勢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 저처럼 좀 이상한 사람은 市로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研究機關에서 일하고자 하고 더군다나 서울시처럼 無窮無盡한 研究課題가 있을 수 있는 이런 研究機關이 있다면 現在 있는 어떤 研究所보다도 훨씬 이쪽에서 優秀頭腦를 誘致할 수 있는 可能性은 많습니다. 제가 보는.....

○蘇中天 委員; 아니, 저는 이렇게 또 보는데요. 우리 市政 그분하고 對話보다도 지난번에 어떤 新聞에 보니까 우리 人力들, 지금 博士님들 굉장히 많아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걸 제가 記事를 본 記憶이 있습니다.

○市政研究官 康泓彬;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市政開發研究院은 博士學位 받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서 무슨 療養所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市政開發研究院의 研究할 레벨은 넷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 아래 部分 責任자가 있고, 研究院이 있고, 研究組員이 있

는데 가장 責任級이 될 위의 두 레벨은 博士學位받고 온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과 같거나 혹은 그런 비슷한, 博士같은 정도의 專門性을 가지면서도 한 10年정도 實績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일이 可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誘致가 되어서 部分마다 管掌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조금 新銳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蘇中天 委員;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公務員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한 研究를 할 수 있고 그런 頭腦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用役을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責任追窮이 안가잖아요, 두 번째 原因은 내 놓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結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廢棄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問題를 論意하려고 하니깐 제가 이 이야기를 追窮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蘇委員님 質疑하시는 內容을 저희가 理解 못하는 것은 아닌데. 첫 번째 公務員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公職者 TO를 그렇게 늘려서 그에 相應한 待遇를 하도록 上位職級을 늘리게 되면 敎育院 비슷하게 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公職者 社會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問題가 있고, 그것은 委員님들한테만 와서 말씀드려서 잘하면 되는데 이것은 政府에 가서 이야기해서 TO를 따고 組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問題가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 우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장사하려고 사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責任追窮 말씀하셨는데 責任을 물을

수 있도록 措置를 하기 위해서 市에서 돈을 주고 財團法人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盲腸에 걸렸는데 消化劑만 줘서 盲腸이 터질 뻔 했어요. 그럼 그 醫師한테 責任을 물어야 되느냐, 죽으면 誤診에 대해서 責任을 묻지만 醫師도 사실상 그런 問題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는 持續적으로 그 사람들을 雇傭을 한다는 것은 좀 말에 語弊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람화해서, 서울市民化 시켜서 서울市民이 무엇을 바라는지, 市政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學術적으로 檢討를 같이 시켜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委員님들께서 그분들을 앞으로 더 活用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희도 지금 始發을 하면서 委員님들께 이렇게 說明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委員님들이 疑心나는 점을 하나 하나 다 일일이 물으시면 경우에 따라 저희가 答辯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企劃管理室長의 意志는 委員님들이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 안에 역시 거짓말 안 하고 그래도 제대로 뭔가 하느라고 비슷하게 하는구나. 아, 그 때 눈 딱 감고 밀어주길 잘했다 이렇게 안도하실 수 있도록 措置할 테니까 委員님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단가 用役이란 것은 우리 委員會만 아니고 다른 委員會에도 用役에 대한 問題는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제 다른 데는 用役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豫算을 다 뺏아 버려서 없어요.

○蘇中天 委員; 네, 그래서 集中的으로 우리가 舉論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기에 계시는 市政管理官한테 個人的인 어떤 自

尊心 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幹部나 우리도 서울시를 위함이라는 것을 參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委員長 朴尙東; 그럼 저 李聲九 委員님!

○李聲九 委員; 市政開發研究院 그 問題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室長께서 만약에 이것을 開設을 한다면 用役費가 많이 節減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내년 2월 稼動한다고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게 準備를 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렇게 된다면 당장 얼마나 내년도 豫算의 節約을 豫想할 수 있습니까? 대략 어떻게 얼마나, 실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 우선 작년 水準으로 봐서 한 27億원 금년에 썼다고 보면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거의 모든 것을 市政開發研究院에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最小限 20億원 가까운 豫算은 節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企劃室所官 用役費가 13億 5,000萬원인데 開發院을 設立한다면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豫算의 節減을 豫想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開發院을 設立을 안 할 때 기준으로 잡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13億원 計上해 놓은 것은 거의 앞에 나와 있는 學術用役 가운데에서 經營實績評價, 社會福祉指標機能設計, 會計監查, 地方議會 運營 및 發展方向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정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初年度니까 포괄 計上된 3億원 정도는 우선 저희가 除外하고

들어가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시다만.....

○李聲九 委員; 그럼 設立을 한다면 3億원은 削減이 되어도 별 支障이 없다 이렇게 넓게 解析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냥 놔두시면 더 좋고,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年末에 返納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參照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지 그건 그렇지 않지, 設立으로 인한 것이 31億원인데 거기서 10億원은 本會議 答辯에 의하면 廳舍 마련하는데 쓰고 20億원 가지고 運營을 하는데 지금 用役費가 13億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億원하고 活動한 것 비하면 20億원이니까 우리가 7億원이 더 손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金委員님 여기 電算用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學術用役이 아니고 電算用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金炯奎 委員; 그럼 電算用役은 빼겠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못하는데요, 빼는 것이 아니라.....

○委員長 朴尙東; 意見이 마무리 되었으니까 잠깐 한 10分만 停會를.....

○李聲九 委員; 다른 것 質疑 하나만 더하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것 또 있습니까?

○李聲九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하세요.

○李聲九 委員;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自治團體 支援金은 어디 所管이 됩니까, 이것도 企劃室所官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그러면 그 중에 調整交付金하고 徵收交付金은 法的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그 쪽은 두고, 財政補助金 330億원은 市에서 任意로 일단 計上할 수 있는 金額이 되겠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그럼 各 區別로 330億원 內譯을 어디 나누어서 記述된 데가 있습니까?

(「專門委員檢討書에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 그럼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해 것만 있지, 내년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330億원이 各 區別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디 明細書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財政補助交付金은 區當 平均 한 15 億원 정도 돌아가는 돈입니다만 내년도 중에 各 自治團體 別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脆弱한 區에 대해서 支援할 수 있도록 留保를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니까 아직은 各 區別로 配定 안 되어 있고 任意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配定 안 했습니다.

○李聲九 委員;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 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그럼. 그것 한마디마져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對比로 볼 때, 우리 專門委員 報告書에 보면 지난해에 對比해서 45.2%이니까 많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問題는 보는 觀點인데, 그 때는 地方自治時代 前이고 지금

은 地方自治時代가 到來되었다는 時點에서 본다면 지난해하고 그런 單純 比較하는 方法이 우선 止揚되어야 될 것 같고 方法 자체가 우선 살림이 틀리니까 보는 方法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 指摘하고, 또 우선 市議會 全體 立場에서는 하여튼 많은 豫算 節減이 市民들 要求事項의 하나라서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削減을 조금 있다 正式 動議하겠습니다.

여기 所管이 되는 事項이지요? 아직은 節次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企劃室所管이면 우리 財務委에서 다루어야 되는 問題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해 본 일이 없어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李聲九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을 理解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은 特別交付金 形態로 各 區에서 불가피한, 돌연한 事態가 發生했다든지 꼭 特定한 事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事業에 대해서 支援해야 될 그러한 部分에 대해서 저희가 特別交付稅로다 支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名目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削減하시기 보다는 놔둬 두시고 앞으로 저희가 運營하는 過程에서 委員님들하고 協議를 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런데 지금 市議會가 아직 運營된 先例가 별로 없기 때문에 企劃室所管이 되면 削減을 할 수 있는 1次的인 常任委員會는 우리 財務委員會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削減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議會運營 內容을 잘.....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일단 意見を 다시는 것으로 해서, 意見を 다시는 것으로.....

○李聲九 委員; 여기 所管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조금 있다가.....

○金炯奎 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 問題는 見解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地方自治法이나 地方財政法의 意圖가, 調整交付金이나 또는 徵收交付金 問題는 法的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이 事項은 市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區에다 다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財政補助金 330 億원 이것도 市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이따가 이쁜 區廳長, 自治區한테 마치 善心이나 쓰는 듯 이렇게 주어서는 안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 몫대로 自治區에 全額 내려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金炯奎 委員; 그리고 내려 줄 수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立場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豫備費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本委員의 見解는 그런 立場이니까 이것을 쓰지 않을 테니까 見解만 붙여서 그렇게 달아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요.

○崔丁植 委員; 財政補助金에 대한 基準은 어디에 根據한 것입니까?

○金炯奎 委員; 根據가 없지.

○崔丁植 委員; 自立度에 根據한 것입니까? 아니, 어디에.....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財政補助金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財政補助金を 남겨놓은 그 根據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崔丁植 委員; 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法 上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地方財政法上…….
- 崔丁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法 上은 어디에 根據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自立度인지 아니면…….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地方財政法 第20條…….
- 崔丁植 委員; 그러니까 第20條에는 어떤 根據…….
- 李秉守 委員; 崔委員님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財政補助金의 性格, 內容을 묻는 것이지요, 概念이 아니고.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 性格.
- 李秉守 委員; 가령 우리 서울시가 거둬야할 地方稅를 각 區廳에서 거둬 주잖아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李秉守 委員; 그 거둬주는 稅額에 標準해서 手數料조로 얼마씩 주는 게 法定交付金이에요. 그것하고 政策的으로 別途로 支援을 해주는…….
- 崔丁植 委員; 아니, 交付金이 아니고 財政補助…….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交付金은 세 가지가 있는데, 普通交付金 그것은 法的으로다 예를 들어서 取得稅·讓渡稅 50%를 넘겨주고, 道路稅 3%를 넘겨주고, 占用料의 30%를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特別交付金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特別한 事案이 있어서 거기에 꼭 보태주어야 될 그러한 경우에 내려주는 것이 있고, 지금 財政補助交付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病弱한 데에, 아까 金炯奎 委員님께서 表現을 하셨습니다만 이쁜 區廳長을 더 준다고 表現하신 그것이 이쁜 區廳長이라기 보다는 좀 脆弱한 데에 저희가 別途

로 補助할 수 있는 그러한 形態가 財政補助金입니다.

○崔丁植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묻느냐하면 앞으로 地方自治制가 定着이 되고 發展이 되려면 各 區別로 이것이 분명한 法的根據라든지 資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궁금히 여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調整交付金으로 해서 普通交付金, 特別交付金이 나와 있고 옆에 徵收交付金이나 財政補助金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基準이, 根據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직 알바가 없어서 質問을 드렸고, 또 제가 이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市立病院醫師나 市立大學 教授는 어떤 待遇를 해 주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立病院 醫師는 지금 公務員 身分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教授?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大學教授는 완전히 教育公務員이기 때문에요.....

○崔丁植 委員; 教育公務員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것은 一般大學教授들과 같습
니다.

○崔丁植 委員; 아까 자꾸 우리 市政開發研究院 問題가 나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좀 效率的이고 能率的인 市政發展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認定이 되어서 내 놓으신 資料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아까 자꾸 身分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研究機關으로써 研究院으로서, 研究官으로써의 우리가 禮遇를 해 주고 責任을 本人이 충분히 질 수 있도록 이것을 社團法人體로 하지 않고도 效率的이고 能率的이고 또 市 豫算

을 節減한다거나 이런 모든 效率的인 方法을 研究를 해 보면 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公社가 5個 公社입니까?

사실 내가 볼 때에는 이 많은 公社의 行政監督이라든지 管理가 좀 소홀한 면이 있다. 아직도 더 많이 市民을 위해서 奉仕해야 되고, 또 市民便宜를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아직도 未洽하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類似的한 機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財政上의 問題도 勘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室長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좋습니다. 李聲九 委員 아까 質疑할 것 있으면 하시고.....

○李聲九 委員; 그러니까 所管部署로는 財政交付金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問題가 되지요?

○委員長 朴尙東; 네.

○李聲九 委員; 그리고 豫備費 問題도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聲九 委員; 그럼 停會 後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逐條審議할 問題는 아닙니다만 室長으로부터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眞意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育成條例案 第2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

하여 연구원의 기금을 설치한다」 2項에 가서 「제1항의 基金은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그 이외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市政開發研究院의 금년도 出損金을 31億원으로 計上하고 있는데, 이 31億원은 지금 條例案 附則에 보면 出捐基金化되고, 여기서 우리가 地方自治團體를 분명히 法的 意味로 봐서 法人格的인 立場에서 볼 때 서울特別市하고 自治區하고 區分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案이 되어 있고 또 하나 問題는 그 以外の 者,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은 서울特別市 住民의 稅金에 의해서 出捐되어 있느니 만큼 이것으로써 족한지, 그 以外の 者의 出捐金을 받는다고 하는 그 疑惑, 그 以外の 者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地方都市가 出捐을 해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自體 資金이 不足하니까 金融團의 支援을 받은 예가 있었어요. 그것은 個人機關이 아니고 金融團에서 支援을 해서 出捐을 해서 같이 한 그런 예가 있었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앞으로 機能이 더 커지고 저희가 조금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에, 또는 다른 地方都市 예를 들어서 같은 銀行들이니까 金融團이 나서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出捐을 좀 해 주겠다 하고 나올 때에 門戶가 없으면 結果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그런 問題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設定만 해 놓은 것뿐입니다.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이상은 다른 데 받을, 돈 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都市는 그렇게 해서 엮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에서는 아마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金炯奎 委員; 예를 들어서 그 以外の 者, 特定の 재벌그룹이나 또 아까 각 金融團이랄지 特定の 經濟團體라든지 여러 社會 研究團體의 出捐金을 받음으로 해서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이 잘못하면 出捐者의 使用化가 될 우려도 있고 또 市政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盜用해서 자기 特定 어떤 利益에 活用될 可能性도 있고 이러한 問題點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러면 金委員님 適正한 指摘해 주셨는데 自治區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 修正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어떻게 室長께서는 그렇게 所信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勇斷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出發했기 때문에, 그렇게 門戶를 開放이나 일단 해 놓자. 하고 저희는 별다른 무슨 準備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門戶만 開放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世間の 疑惑을 살 可能性이 있다 이렇게 判斷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니까 疑心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炯奎 委員; 그리고 이것이 財團法人을 우리가 育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立場이라면, 財團法人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定款이 나와야 됩니다. 定款 內容이 어떻게 成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狀態에서 이와 같은 機構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問題도 不合理하고, 또 이 育成條例案을 보면 우리가 施行規則에 基金 및 出捐金의 運營管理를 서울市長이 하겠다고 하는 規則으로 정하겠다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財

團法人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育成條例案으로 봐서도 상당한 疑惑이 있고 이것이 不合理하다, 運營 改善하는데. 이런 것을 우선 指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나중에 條例 審査했을 때 더더구나 問題點이 있을 것 같고, 本委員 생각에서는 일단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해서는 追後 더욱더 이것을 分析 檢討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豫算案 審査는 가장 重要하기 때문에 우리가 理解 못한 점은 또 서로 충분한 質疑에서 答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時間이 經過되었습니다만 10分間만 停會하고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2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은 1992年度 企劃管理室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들 財務局 所管 豫算案을 다루고 모레 午後 2時에 企劃管理室 豫算案과 財務局 豫算案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豫算의 章·款·項·目 중에서 어느 分野를 削減하고, 또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決定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충분한 意見 開陳이 되었고 또 室長님의 충분한 答辯에 의해서 委員님들이 많은 理解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疑問되는 어떤 分野에 대한 것은 조금 더 研究를 해서 내일 모레 午後

2時에 일괄 豫算案을 손질해서 決定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室長님께서는 理解해 주시고, 특히 오늘 豫算案 內容을 具體的으로 더 計數調整에 신경을 써 주실 분이 우리 李秉守 委員님과 특히 豫決委員長으로 內定되어 계신 全潤枸 委員님과 蘇中天 委員님과 柳準向 委員님께서 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 좀 해 주시고 오늘 豫算審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室長님과 關係官 여러분께서 늦도록 이렇게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하시는데 神經을 많이 쓰셨고, 내일 午後 2時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8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金潤枸 孟今龍 柳準向
車在國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朴別根 崔丁植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企劃擔當官 金光市
審查分析擔當官 金淳直

豫算擔當官 金禹奭
投資管理擔當官 崔永福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陳翼喆
統計擔當官 李元兌
技術審查擔當官 金完圭
電子計算所長 權五鹿